

세련된 패션의 도시, 밀라노

이탈리아는 가볼만한 곳이 참 많은 나라이다. 유적지로 가득한 고대도시 로마를 비롯해 아름다운 운하의 도시 베네치아, 낭만적인 피렌체, 패션의 도시 밀라노 등. 곳곳에 위치한 작고 예쁜 마을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한정된 시간에 이탈리아를 여행한다면 어떤 도시를 어떤 일정으로 둘러봐야 할까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된다. 도시 한두 개를 선택해 집중적으로 매력을 파헤치는 여행도 좋고, 기차로 잘 연결된 여러 개의 도시를 알차게 둘러보는 여행도 괜찮다.

여행을 어떻게 디자인할까 하는 것은 여행자들의 몫. 열흘 정도의 기간이라면 이탈리아의 주요 도시들을 가보는 것도 가능하다. 북부 밀라노부터 시작해 남부 로마에서 마무리하는 일정은 이탈리아의 다양한 풍경을 경험하게 해줄 것이다. 만약 멋스럽고 유쾌한 이탈리아 사람들의 매력이 궁금하다면 밀라노를 추천한다. 밀라노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의 모습이 펼쳐질지도 모른다.



해질 무렵 밀라노 대성당과 두오모 광장



화려함과 정교함의 극치, 밀라노 두오모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주도인 밀라노는 흔히 '패션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다. 4세기경부터 이탈리아 북부의 종교 중심지로 발달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밀라노에 본사를 두고 있고 은행 본점도 주로 이곳에 모여 있어 이탈리아의 경제 산업 중심지 역할을 한다. 그래서 로마와 피렌체, 베네치아 등 다른 도시에 비해서 도시 자체가 조금 딱딱하고 차갑다고 느껴지는 여행객들도 있다. 실제로 이탈리아 남부 사람들 중에는 밀라노 사람들을 가리켜 '일 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 하기도 한다고.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유한 북부의 중심 도시, 밀라노의 도시 풍경은 또 화려하고 감각적이다. 도시 자체가 마치 거대한 쇼룸 같다. 거리를 걷다 보면 세련된 옷차림의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고 골목골목에는 감성이 잔뜩 묻어있다. 밀라노를 여행지로 선택했다면 어떤 옷을 캐리어나 놓아야 할까 잠시 고민에 빠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패션은 자신감'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또 밀라노를 여행하며 현지인들의 패션 감각과 센스를 엿보다 보면 어느새 패피(웃 좋아하는 패션에 관심이 많고 옷 잘 입는 사람)가 되어있을지 모를 일이다.

이탈리아 도시 혹은 유럽 다른 도시에서 기차를 타고 밀라노를 여행하게 된다면 밀라노 중앙역에서 여행은 시작된다. 하얀색의 웅장한 건물로 이뤄진 중앙역 주변에는 호텔 등 숙박시설도 다양하다. 중앙역에서 시내까지는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메트로를 이용한다. 노란색 메트로 3호선을 타고 두오모역에 내려 화려한 대성당을 둘러보며 여행을 시작



①해질 무렵 밀라노의 스카이라인 ②밀라노의 도시 풍경에 낭만을 더해주는 트램 ③화려하고 우아한 외관의 밀라노 두오모 ④웅장한 아케이드 쇼핑센터인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갈레리아 ⑤세계 패션의 도시이자 쇼핑의 메카, 밀라노 ⑥명품숍이 가득한 밀라노 쇼핑 거리 ⑦밀라노는 남부 도시들에 비해서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을 주기도 한다 ⑧오토바이마저도 멋스러운 골목

하자. 지하철역 출구로 나오자마자 맞이하는 두오모는 거대함으로 여행객들을 압도한다.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힘든 놀라움과 감동이다. 밀라노 두오모는 유럽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정교한 건축물로 꼽힌다. 멀리서 보면 마치 촘촘하게 짠 흰색 레이스천에 둘러싸인 모습일까. 1386년에 “우리 도시에도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 같은 건물을 짓도록 하라”는 영주 갈레아초 비스콘티의 명령으로 착공했고 완성되기까지 5백년이 넘는 긴 세월이 걸렸다. 가톨릭 대성당으로는 바티칸의 성베드로 대성당, 스페인의 세비야 대성당 다음으로 3번째로 큰 건물로 꼽힌다.

성당 안으로 들어가면 내부 역시 장엄하다. 벽 사이사이를 채운 화려한 조각품과 스테인글라스 작품에서도 눈길을 떼기 어렵다. 두오모의 진정한 매력을 느끼고 싶다면 대성당 옥상으로 올라가자. 어쩌면 두오모 투어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데 250여 개 계단을 걸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도 가능하다. 성당 꼭대기에는 황금색 성모 마리아 상과 2000여 개의 성인상 135개의 초상화가 있다. 작은 초상들이 숲을 이룬 모습이 특히 장관이다. 두오모의 가장 높은 첨탑에서 있는 성모 마리아 상은 3천9백여 장의 금박으로 덮혀 있는데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면 더 신비롭다. 발밑의 두오모 광장과 멀리 밀라노의 경치를 지켜보는 것도 환상적이다.

100년 넘는 우아한 건물에서 쇼핑하기

두오모 바로 근처에 있는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갈레리아는 5층짜리 아케이드로 밀라노 최고의 쇼핑 장소이다. 1867년에 완공된 쇼핑센터라고 하기에는 지금까지도 그 모습이 너무 잘 보존되어 있다. 원래는 복권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건축하려고 했지만 실패하면서 영국 자본으로 지어지게 되었다. 처음 지어졌을 당시에는 예술가, 작가 등의 명사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는 등 최고의 사교장으로 사용되었다. 현재는 프라다 본점과 루이비통, 구찌 등 명품숍을 비롯해 다양한 상점들이 들어선 쇼핑센터로 사용되고 있다. 지붕이 유리로 만들어져서 내부도 아주 환하며 전체적으로 우아한 분위기다. 쇼핑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여행자들에게는 훌륭한 볼거리가 된다. 또 크리스마스 전후가 되면 아케이드 유리돔을 가득 메운 작은 전구들의 불이 켜지며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면

서 쇼핑을 즐길 수 있다. 밀라노에서 연말 분위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으로도 손색이 없다.

두오모 광장에서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갈레리아를 통과하면 스칼라 극장이 나타난다. 빈, 파리와 함께 유럽 3대 오페라 하우스라 불린다. 옛날부터 유명 오페라 작곡가들이 이곳에서 작품을 초연했는데 베르디와 푸치니가 오페라 초연을 했던 곳이기도 하다. 높이는 7층으로 꽤 높으며 1층을 제외하고 다른 층은 박스석으로 되어 있어서 독특하다. 총 3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계단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옆에는 극장에 올랐던 오페라 포스터도 꼭 걸려있다.

스칼라 극장 뒷편에는 브레라 대학을 비롯해 예술가들이 많이 모이는 동네인 브레라가 있다. 작고 정감가는 식당들이 곳곳에 있고 아늑한 카페도 있으며 소풍을 파는 숍들도 있어 천천히 걷기 좋다. 어쩌면 밀라노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동네로 기억될지도 모른다. 골목에 위치한 식당 한 군데를 골라 이탈리아 가정식을 먹어보는 건 어떨까. 밀라노의 전통 음식이라고 하면 보통 리조토 알라 밀라네제를 곁들여 먹는 오소부코를 들 수 있다. 오소부코는 소 뒷다리 중에서 정강이 부분에 와인을 넣은 뒤 푹 쪄서 만든 요리이다. 살이 연하기도 하고 와인 덕분에 향도 좋다. 오소부코를 주문하면 밀라노식 리조토, 알라 밀라네제가 꼭 곁들여 나온다. 고급 향신료 사프란을 넣어서 샛노란 색이라 색깔도 곱고 버터가 들어가 맛도 부드럽다. ‘코톨레타 알라 밀라네제’도 밀라노를 대표하는 요리로 송아지 고기로 만든 커널렛. 오스트리아의 슈니첼과도 비슷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돈가스와의 비주얼이 비슷하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며 느끼하지 않아서 우리 입맛에도 딱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흔적을 찾아서

밀라노에는 이탈리아의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흔적과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곳도 많다. 다빈치는 그림 뿐만 아니라 과학, 의학, 건축 등 다방면에 걸쳐서 큰 업적을 남겼는데 15세기 르네상스 미술은 다 빈치에 의해 완성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⑨낭만이 가득한 나발리오 운하 ⑩밀라노 골목의 알록달록한 건물 ⑪⑫밀라노 근교, 코모 호수 주변의 예쁜 마을 ⑬디펜딩 챔피언 스테파노스 치치파스

레오나르도 다빈치 국립 과학기술 박물관은 다빈치 탄생 500주년이 되던 해인 1953년에 문을 열었다. 들어가는 문은 작지만 막상 안으로 들어가면 의외로 규모가 크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회화 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 그가 이룬 다양한 업적들이 전시되어 있다. 아이들을 위한 체험 학습이나 실험과 같은 프로그램도 있는데 다빈치에 대해 약간의 공부를 하고 온다면 훨씬 더 재미있게 박물관을 둘러볼 수 있다.

박물관에서 나와 북쪽으로 좀 더 걸어가면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성당이 나타난다. 이 성당에 옆에 붙어 있는 도미니코 수도원 식당 벽에는 다빈치의 걸작이 그려져 있다. 바로 <최후의 만찬>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한 만찬의 장면을 다빈치가 1495년부터 1498년까지 그린 작품. 천재성의 다양한 면이 담겨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다빈치가 그림자와 빛을 더 정교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템페라에 유채물감을 섞은 재료로 그림을 그렸는데 훼손이 심해서 이 그림은 얼룩만 남아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1970년대부터 복원작업이 시작되어 1999년이 되어서야 다시 작품이 사람들에게 공개되었다. 비록 몇몇 비평가들은 지나친 덧칠 때문에 원작품의 예술성이 훼손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했지만 그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운이라 여기는 사람들도 많다. 25명씩 들어가서 15분 동안 감상할 수 있게 해주는데 밀라노에서 꼭 이 그림을 보고 싶다면 미리 예약하도록 하자.

밀라노에는 다빈치의 흔적을 만날 수 있는 건축물도 있는데 바로 스포르체스코



성이다. 밀라노의 대표적인 르네상스 건축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비롯해 당시 유명한 건축가였던 브라마nte가 건축에 참여했다. 또 미술에 관심 있는 여행객들이라면 밀라노의 브레라 회화관과 암브로시아나 회화관도 놓칠 수 없는 곳이다. 브레라 회화관에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걸작 500여 점이 전시되어 있고 암브로시아나 회화관에는 보로메오의 개인 컬렉션을 비롯해 다빈치, 보티첼리, 카라바조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낭만적인 운하 따라 산책해볼까

밀라노를 대표하는 관광지들을 모두 둘러보았다면 밀라노 여행을 더 특별하게 해줄 경험들을 찾아나서보자. 축구의 나라, 이탈리아에 온 만큼 축구 경기를 보러 가는 건 어떨까. 여행 일정 중에 경기가 열린다면 엄청난 행운일지도 모른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경기장 중 하나이자 이탈리아 축구의 역사를 보여주는 '산시로 경기장'에서 볼 수 있으니 축구팬이라면 놓치기 아깝다.

산시로 경기장은 고대 원형경기장을 현대식으로 개조한 듯한 형태로 1926년에 개장해 그 역사도 무척 오래 되었다. 1956년과 1989년에 보수 공사를 거쳤고 약 8만5700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다. 이탈리아 프로축구 리그인 세리에 A 최고의 라이벌인 AC밀란과 인테르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홈구장이다. 통상 밀란의 홈 경기때는 '산시로'라고 불리고 인테르 경기때는 주세페 메아차로 불린다. 유러피언컵 결승전, 챔피언스리그 등 빅경기가 종종 열리기도 하며 박물관과 경기장 투어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최근 밀란의 파울로 스카로니 회장이 새 홈구장 건설을 추진 중이지만 언제가 될지는 아직 미정이다. 그래도 아직은 100년이 다 되어 가는 상징적인 경기장에서 경기를 볼 수 있다는게 여행객들에게도 행운이다.

이탈리아 사람들의 축구 사랑은 상상 그 이상인데 경기가 있는 날에는 온 동네가 난리법석이다. 두오모 광장을 가득 메운 축구 팬들의 응원



12

소리도 들을 수 있다. 실제로 경기장에 가보면 축구에 대한 열정과 그 뜨거운 열기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을테니 여행 계획을 세우며 이곳의 축구 일정에도 꼭 주목하자.

밀라노에서는 운하 주변을 산책하는 것도 꽤 낭만적이다. 밀라노 대성당을 건축할 당시에 대리석을 운반하기 위해 여러 개의 운하가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나발리오 운하를 비롯해 몇몇의 운하만 남아있다. 나발리오 운하를 따라가다보면 마치 베네치아의 일부를 보는 것 같다. 운하를 따라 이어진 상점들과 많은 관광객들, 낭만적인 분위기까지 꼭 닮았다. 또 이곳은 젊은 예술가들이 몰리는 곳으로도 유명한데 골목을 들어가보면 멋진 그림을 판매하는 작은 아틀리에도 볼 수 있다. 아기자기한 카페도 많고 저녁이 되면 펍과 노천 카페에 사람들이 가득해 밤 늦게까지 활기 넘친다. 보통 오후 5시 이후가 되면 운하 곳곳의 펍에는 '해피 아워'가 시작된다. 음료 한잔 가격에 보통 안주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다양한 뷔페식이다 맛있는 안주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어 늘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여름밤에는 운하 옆 클럽에서 라이브 공연이 펼쳐지기도 해 낭만을 더해준다.

시간 여유가 있다면 근교의 호수마을을 추천한다. 북쪽으로 1시간 정도 떨어진 아름다운 코모 호수 주변으로 예쁜 마을들이 펼쳐져 있다. 밀라노역에서 코모 산 지오반니로 가는 기차를 타고 당일여행도 가능하다. 기차역에서 내려 선착장으로 걸어가면 호수 주변의 마을로 데려다주는 페리를 탈 수 있다. 어떤 마을을 선택하더라도 아기자기하고 이국적인 풍경은 한결같다.

〈이것만 알고 떠나자〉

가는 길 대한항공에서 인천~밀라노 직항을 운항한다. **비행시간** 약 12시간 소요. **현지교통** 3개의 메트로 노선과 트램, 버스가 운행된다. **기후** 사계절이 뚜렷한 편인데 지역에 따라 다르다. 남부는 1년 내내 온화한 편이며 북부는 겨울에 함박눈이 내리기도 하고 여름에는 무덥다. **비자** 60일 이내 관광여행의 경우 비자가 필요없다. **통화** 유로를 사용한다. **언어** 공용어는 이탈리아어이며 관광지에서는 영어가 통용되기도 한다.



13

Tournament Information

대회명칭 넥스트 젠 ATP 파이널스(Next Gen ATP Finals)

기간 2019년 11월 5일~9일 **장소** 이탈리아 밀라노 팔랄리도 알리안츠 클라우드(Palalido Allianz Cloud)

웹사이트 www.nextgenatpfinals.com **드로** 8S

총상금 139만7400달러(약 16억6779만원)

디펜딩챔피언 스테파노스 치치파스(그리스)

2017년에 신설된 대회인 넥스트 젠 ATP 파이널스는 이름처럼 'ATP의 젊은 별들을 가리는 대회'이다. 21세 이하 선수 8명이 출전해 왕중왕을 가리는데 레이스투 밀라노 상위 랭킹 7명이 출전 자격을 얻으며 나머지 한 명은 개최국에서 와일드카드로 결정한다. 2021년까지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ATP 랭킹 포인트가 걸려있지 않지만 ATP 공식 투어대회로 인정받고 있다. 정현이 첫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국내 테니스 팬들에게도 대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두 조로 나누어서 라운드로빈을 거치고 각조 상위 2명이 4강 경기를 펼친 뒤에 결승전을 치르는 방식이다. 보통의 대회와는 달리 한 세트가 4게임으로 진행되며 서비스 레트 제도를 폐지해서 서브 시 공이 네트에 맞고 들어가는 경우에도 인플레이가 선언된다. 듀스를 적용하지 않는 등 실험적인 경기 규칙을 도입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

클_하정화 객원기자 사진_GettyimagesBank